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rategies in Middle Childhood

이 경희*
Lee, Kyung Hee

최 경순**
Choi, Kyoung 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gniti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142 male and 148 female fifth graders randomly selec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their fathers. The children and fathers were administered the Means-Ends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MEPS) test and the Social Competence Scales based on Choi's inventory(1992).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wo subvariables (capability and leadership) of social competence and MEPS.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PS scores than boys in the variables of overall problem solving, effective problem solving, and dependent strategy.

I. 서 론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이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수적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으며(Water et al., 1983), 최근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Pelligrini, 1985).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면 현실 사

회에의 적응이 어려우며,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Shure & Spivack, 1972). 즉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사회적 적응능력으로서의 사회적 지능을 측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실제적인 사회적응의 정

* 한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도를 측정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부적응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대인간 문제해결력이 낮고 해결방안의 수도 제한되어 다양하지 않으며, 또래 간에 인기도도 낮고 불안정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Newman et al., 1973; Spivack & Levine, 1963). 또한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정신 질환(Platt & Spivack, 1972), 정서불안(Spivack & Shure, 1972)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아동의 대인관계, 정신건강, 비행 등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Oden & Asher, 1978),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대개 비정상 아동 또는 부적응 청소년에 치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일반 아동, 특히 학령기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인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Ford, 1982; Gottman et al., 1975; Kurdek, 1982). 타인의 관점이나 사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데 초기의 많은 사회적 행동은 대개 부모에게서 배우지만(Maccooby & Martin, 1983; Ladd & Price, 1986; Putallaz, 1987), 아동이 성장하면서 인지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은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나 (Selman et al., 1984),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대인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창출을 위한 훈련의 기회가 적은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기인된다는 물론이며, 이외에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인지적 측면과 통합하여 항상시키고자 하는데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에도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학령기 일반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행동과 수단-목적적 사고가 비교적 상관이 높으므로(Spivack et al., 1976) 이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남여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의 특성에 대해서 밝혀보자 한다. 측정도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Spivack(1976)의 대인간 인지 문제해결력 검사(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ICPS)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Peligrini(1985)의 MEPS-R과 Pease, Clark와 Crase(1979)의 사회적 능력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 Form)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번안, 개작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 봄으로서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의 특성 및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하는데 유용한 자료제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

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인간 문제해결력

아동이 사물을 지각할 때는 주로 크기, 형태, 색깔 등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지만 사람을 지각할 때는 그 대상의 행동, 의도, 동기 및 감정에 초점을 둔다(Bower, 1972; Trevarthen, 1977).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타인의 관점 고려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인지능력이 요구된다(Mussen et al., 1984). 따라서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사회적 조망능력과 함께 사회적 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개념으로서 (Eulight, 1982; Pelligrini, 1985; Pelligrini et al., 1987),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Spivack et al., 1976).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그 아동의 인지적 문제해결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지적 문제해결력은 가상적인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Meisel, 1989). 인지적 문제해결력의 요소중 아동의 외현적인 사회적 적응과 가장 일관성 있는 관계를 가지는 요소들을 개괄하면 대안적 사고, 결과적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적 사고로 설명될 수 있다.

대안적 사고(alternative thought)는 특별한 대안에 대해 즉시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결과들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원인적 사고는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특별한 수단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그 목표달성 과정에서야 가능할 수 있는 장애들을 인식하여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해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각각 별개의 능력이면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사회적 인지에 통합되는데 4-6세 경에는 대안적 사고가, 8-12세 경에는 수단-목적적 사고가 사회적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에 특히 중요한 인지적 문제해결력의 영역은 수단-목적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Spivack et al., 1976). Dodge(1982)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단서를 찾아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가장 알맞은 방안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과정의 사회정보처리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Spivack과 Shure(1976)의 수단-목적적 문제해결력과 일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목적적 사고에 관련된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코자하며, 다음 절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아동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권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능력은 크게 환경에 대한 적응의 동물행태적인 관점 (Conolly & Burner, 1974; White, 1958), 인성구조론적 관점(Baumrind, 1973; Kohn & Roseman, 1972),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Forster & Ritchey, 1979; O'Mally, 1977; Perry & Bussey, 1984)으로 대별된다. 동물행태학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이다. Conolly와 Brunner(1974)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얻어서

원활하게 사회에 이입해 가는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이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자연적인 상황 혹은 그와 유사하게 조작된 실험상황에서의 관찰로 이루어졌는데 Harvard Preschool Project (1978)가 그 좋은 예이다.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에 있어서 사회적 능력은 어른과의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관심을 끄는 것,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어른에의 애정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성취한 일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또래에게 경쟁심을 보이는 것, 애정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또래를 이끌고 따르는 행동 등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파악되었는데 (O'Mally, 1977), 이와 같은 능력에는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적절하게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인성구조론적 관점은 아동의 다양한 인성 구조 속에서 궁정적 부정적 속성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았다.

Schafer(1965)에 의하면 애정, 외향성, 접근성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 특성으로,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을 부정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Kohn과 Rosman(1972)도 사회적 능력을 양극적 개념으로 구성된 두개의 차원, 즉 부정적 또는 긍정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Pease와 그의 동료들(1979)도 사회적 능력은 단일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많은 측면들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집단 상호작용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주장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정은 교사나 부모와 같

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정될 수 있다. 이중 부모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동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병림, 1990; 최경순, 1992; Sears, Maccoby & Levin, 1957). 대개 부모의 아동 평정은 비교적 일치하나 (Lyon & Plamin, 1981),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 파악에 더 민감하다 (Totta & Crase, 1982).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아버지 평정은 어머니 평정과 일치하거나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최경순, 199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개념은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을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유능성, 반항성,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 등이다 (Ford, 1982; Pease et al., 1979). 유능성은 새로운 것에 흥미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이용할 줄 아는 특성이며, 반항성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지적 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며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많이 하는 특성이다. 지도력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친구나 어른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안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애정은 부모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생각과 활동에 대해 부모와 자주 의논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유아와 학령 전기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부모-친인과의 관계 및 영향을 다루고 있다 (Easterbrooks & Lamb, 1979; Ladd & Golter, 1988; Lieberman, 1977). 또한 긴장상황을 견뎌내는 능력과 사회적

능력(Garmezy et al., 1984), 유머능력과 사회적 능력(Masten, 1986)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며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에 관한 사회인지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나 정보처리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Dodge et al., 1986; Ford, 1982; Gottman et al., 1975; Pellegrini, 1985).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령기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사회적 능력의 여러 영역과 사회 인지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일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대인간의 효율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지의 발달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인지 영역 중 특히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그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Ford, 1982; Schantz, 1975).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특히 수단-목적적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전제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10-2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단-목적적 사고 검사에서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보다 문제해결에 관한 대안들을 구성하는 능력이 뒤떨어졌으며, 이야기 구성능력에 있어서도 보다 충동적이고,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경향이었다(Shure & Spivack, 1972). Johnson과 그 동료들(1980)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인간 문제 해결력검사(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est: PIPS)에서도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대상의 크기, 양, 그리고 공간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과 학급에

서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 보다 PIPS 점수가 낮았다. 또한 Selman과 Demorest(1984)도 사회 정서적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한다. 국민학교 2-5학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Richard와 Dodge(1982) 역시 고립적인 아동들과 공격적인 아동들이 인기 아동들에 비해 효율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립적 아동들과 공격적인 아동들의 문제해결의 대안을 구성하는 인지적 문제해결력에 있어서의 결함을 들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능력과 대인간 문제해결력과의 관계가 밝혀 졌으나, 이들 연구의 대상이 부적응이나 정상아의 극단적인 그룹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사회적 능력을 주로 사회성 측정법에 의존하여 왔으므로 사회적 능력과 사회 인지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는 일반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대인간 문제 해결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나 사회적 능력과 대인간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온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남여 아동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밝히고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시내 2개 공립 국민학교에서 5학년 아동 13학급 6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그 아버지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330쌍을 무선표집 하였다. 무선표집한 330쌍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90쌍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에서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을 택한 근거는 이 시기 아동은 부모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행동의 특질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자기 중심적 사고의 단계를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고 문제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의 아동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최경순, 1992; Saavedra, 1980; Spivack, 1976).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 검사와 아버지 평정용 아동의 사회적 능력 검사였다.

1)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검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검사는 Spivack (1976)의 대인간 인지 문제 해결력 검사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ICPS)를 토대로 하여 아동의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가설적인 이야기로 구성하여 수정 제작한 Pelligrini(1985)의 MEPS-R 검사지를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알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6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사회적 문제 상황을 이야기의 시작과 끝 부분만 제시하면서 왜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중간 공백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완성형 검사이었다. 채점자간의 신

뢰도는 0.91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2이었다. 수단-목적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해결방안들의 조작적 정의 및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효율적 방안 :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수단의 수
- (2) 장애 고려 : 목적달성을 방해가 되는 잠정적 장애물로 인식된 장애물의 수
- (3) 시간 고려 : 문제해결 과정의 요인으로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수
- (4) 공격적 방안 : 문제해결을 위해 언어적 위협이나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의 수
- (5) 의존적 방안 :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자의 도움을 빌어 행동하는 수단의 수
- (6) 전체 대인간 문제해결력 : 위의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Pease, Clark와 Crase(1979)의 사회적 능력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 Form)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작하였다.

우선 Pease와 그 동료들이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최경순(1992)이 번안한 부모용의 질문지 중 아버지용을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 능력 문항을 각 하위변인에 따라 추가, 총 47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지를 제작하여 부산시내 1개 국민학교 5, 6학년 2학급 아동의 아버지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의 3개 공립국민학교 5, 6학년 8학급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중 부실 기재를 제외한 28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과정을 거

쳐 최종 선정된 34문항의 하위척도를 개념화 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 아버지 평정용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변인은 유능성,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 반항성의 네 범주였으며,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80~0.86으로 내적합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는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 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문항별도 그리고 각 문항이 제외될 경우의 내적합치도(Cronabch α)를 구하였으며, 문항분석 과정에서 선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4요인에 대해 개념화 하였다. 대인간 문제해결력을 각 하위 영역의 평균, 표준편차, Wilcoxon Test로 검정하였다. 사회적 능

력과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각 변인 간의 관계는 상관(Pearson's r)분석을 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AS/PC(SAS Institute, 1985)프로그램으로 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번안 및 개작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검사 및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전술한 조사방법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비교,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비교,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순으로 정리하였다.

1. 남여 아동의 문제해결력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 비교(Wilcoxon Test)

대인간 문제 해결력	남		여		Z
	M	SD	M	SD	
효율적 방안	6.95	2.02	7.93	2.19	4.07***
장애 고려	2.80	1.33	3.14	1.32	2.88***
시간 고려	0.30	0.54	0.29	0.56	0.33
공격성 방안	0.19	0.49	0.13	0.37	1.03
의존적 방안	0.04	0.18	0.12	0.40	2.38*
전체 문제 해결 방안	10.28	2.68	11.61	2.87	4.04***

* $p < .05$, *** $p < .001$

대인간 문제해결력에서의 남여간의 차이는 자료가 비정규적 분포이며, 비연속적이어서 비모수적 방법(Wilcoxon Test)으로 검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아동의 수단—목적적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전체 문제해결 방안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효율적 방안($p < .001$), 장애고려($p < .001$), 의존적 방안($p < .05$)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문제해결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단—목적적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 중 시간적 고려나 공격적 방안은 남아와 여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사실(이혜성 역, 1989)이나 청소년들의 대인간 협상전략을 평가한 Selman과 그 동료들의 연구결

과와는 비교적 일치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대인간 문제해결방안수와 내용을 조사한 Shure와 Spivack(1970, 1972)의 연구결과나 국민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과 사회인지를 연구한 Kurdek(1982)이 보고, 학령전 아동의 문제 해결력을 조사한 김은희와 이영(1991)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수단—목적적 대인간 문제해결력을 평가해 보면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고는 아직 일관성 있는 해석이나 결론을 얻을 수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비교

사회적 능력	남		여		<i>t</i>
	M	SD	M	SD	
유능성	3.33	0.62	3.36	0.64	0.83
지도력	3.30	0.66	3.32	0.74	0.37
부모에 대한 애정	3.14	0.74	3.24	0.77	0.57
반항성	3.01	0.72	3.05	0.72	1.6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유능성,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 반항성의 네 하위변인 모두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별 평균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적 능력 네 하위변인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평균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령아

동의 사회적 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유능성이거나 지도력이 부모에 대한 애정이나 반항성보다 평균이 높다는 사실과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은 성차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능력에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Kohn과 Rosman(1972), Lieberman(1977), Kurdek(1982), 한성희(1985)의 연구결과

와 일치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한 Ford(1982), 이병립(1990)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들도 대인간 문제해결력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일관성 있는 결론이나 해석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인간 문제해결력이나 사회적 능력에 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대상, 사용된 척도의 하위개념구성, 평가방법 및 기준이 연구마다 다소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3.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앞에서는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의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기초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인간 문제해결력	사회적 능력			
	유능성	지도력	부모에의 애정	반항성
효율적 방안	0.228*	0.125*	0.106	-0.003
장애 고려	0.125*	0.107	0.050	-0.016
시간 고려	0.049	0.031	-0.048	0.063
공격적 방안	0.021	-0.007	-0.027	-0.198*
의존적 방안	-0.071	-0.032	-0.008	-0.032
전체문제 해결방안	0.212*	0.129*	0.074	-0.013

* p < .0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간에는 하위변인에 따라 상관의 정도가 다소 달랐으며, 대체로 상관이 낮은 경향이었다. 전체문제 해결방안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유능성, 지도력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대인간 문제해결력의 하위변인중 효율적 방안도 사회적 능력의 유능성 및 지도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장애고려는 사회적 능력의 유능성에서 정적 상관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인간 문제해결력 중 시간고려나 의존적 방안은 사회적 능력의 어떤 변인과도 그다지 상관이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아동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다양한 수단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 수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 중 유능성, 지도력이 높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제해결 수단의 수가 많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적응력이 높았다고 보고한 Shure와 그 동료들(1973)의 연구나 Spivak과 그

동료들(1976)의 연구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장애요소를 고려하는 정도는 사회적 능력의 유능성과 관련성이 있으나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 반항성 등의 사회적 능력과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간 고려나 공격적 또는 의존적 방안을 사용하는 정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성이 희박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예측했던 견해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이었다.

그러나 공격적 방안을 사용하는 정도와 사회적 능력의 반항성이 의미있는 역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아동들의 진술 내용 중에서 위협이나 언어적 공격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대편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사회적 능력의 네 영역중 유능성과 지도력, 특히 유능성과 관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이론적 가정보다 관련성이 희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시초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결론이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어려운데 설득력 있는 해석이나 설명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일반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학교 고학년 남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을 측정해서 그 특성을 비교하며,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국민학교 5학년 남여 아동 290명과 그들의 아버지였고, 측정도구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Pelligrini(1985)의 척도를 연구자들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척도는 Pease와 그 동료들(1979)의 척도를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도록 연구자들이 개작하여 신뢰도 타당도 검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수단—목적적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대체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효율적 방안, 장애고려, 의존적 방안에서 여아의 문제해결력이 남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둘째, 남여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특성은 유능성, 지도력이 부모에 대한 애정, 반항성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능력의 제 변인 모두에서 사회적 능력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셋째,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 간에는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지만 상관이 있었다. 특히 문제해결력 중 효율적 수단은 유능성, 지도력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장애고려는 유능성과 정적 상관이, 공격적 방안은 반항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은 하위변인에 따라 상관의 정도가 다르며, 문제해결력이나 사회적 능력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음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분석에 한정되었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제영역 발달을 고려해서 관련변인을 확대하여 체계적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은희, 이영.(1991).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 (1), 52-67.
- 박찬옥. (1986).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청구 논문.
- 전경란. (1989). 아동이 지각한 형제 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립. (1990).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대 기념교수 논문집*, 38-74.
- 이혜성(역). (1989). 남녀의 행동 연구. 케이 듀오 저. 이화여대 출판부.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Bower, T. G. R. (1972). Object perception in infants. *Perception*, 1, 15-30.
- Conolly, J. & Doyle, A. B. (1981). Assessem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Teachers versus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54-462.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Se-
- rial No. 213).
- Easterbrooks, M. A., & Lamb, M. E.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y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380-387.
- Enright, R. D. (1982). A classroom discipline model for promoting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Moral Education*, 11, 47-60.
- Eugene, S. U., & Kendal, P. (1980). Review of social cognitive problem-solving intervention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9(1), 109-143.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Forster, S. L. & Ritchey, W. I.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Garmezy, N., Master,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1.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Kohn, M. & Ros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Factor demensions,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 Psychology, 6, 430-444.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sten, A. S. (1986). Humor and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461-473.
- Mathney, A. P., Wilson, R. S. & Nuss, S. M. (1984). Toddler temperament: Stability across settings and old years. Child Development, 55, 1200-1211.
- Mussen, P. H., Conger, I. J., Kagan, J. & Huste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 Y.: Harper & Row Publishers.
- O'Mall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Pelligrini, D. S.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Pelligrini, D. S., Masten, A. S., Garmezy, N., & Ferraresse, M. J. (1987). Correlates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28, 699-714.
- Platt, J., & Spivack, G. (1972). Problem-solving thinking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148-151.
- SAS Institute (1985). SAS/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s. Cary.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ears, R., Maccoby, E. & Levine, H. (1957). Pattern of Child Rearing. New York: Harper & Row.
- Shantz, C. U. (1983). Social cognition. In P. H. Mussen (Series Ed.), J. H. Flavell & Markman, E. M. (Volume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Wiley, 498-544.
- Shure, M. B., Spivack, C. T. (1972).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48-353.
- Shure, M. B., Spivack, C. T.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ar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vack, G., & Levine, M. (1963). Self-regulation in acting-out and normal adolescents. Report M-4531,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ashington, D. C., 1963.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B. (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Totta, S. A. & Crase, S. J. (1992). Parents and day-care teachers' perceptions of young children's skill. Perceptual and Motor

- Skill, 54, 955-961.
- Trevarthen, C. C. (1977). Descriptive analysis of infant communicative behavior. In H. R. Schaefer(Eds.), Studi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London: Academic Press.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부록 1〉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요인 패턴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내 용	요인 I	부하량(회전후)				하위 척도명
					II	III	IV		
013	2.85	1.35	나에게 뾰뽀하거나 안기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73	.03	.06	.10	부모에 대한 애정	
08	3.85	1.11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	.71	.07	.09	.06		
06	3.10	1.23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 생긴 고민거리나 갈등을 나에게 이야기 한다.	.71	.17	.13	-.02		
04	3.26	1.19	모든 일을 나와 의논한다.	.66	.11	.20	-.08		
010	3.66	1.10	밖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 하기를 좋아한다.	.65	.17	.23	-.03		
07	2.87	1.26	내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즉시 내게 다가와 말을 건다.	.62	.10	.19	.00		
03	3.44	1.27	학교에 가기 전이나 다녀 온 후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 또는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나를 찾는다.	.62	.07	.15	.08		
01	3.43	1.27	나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예 : 나를 껴안거나 만지려 하고 기대려고 한다.)	.59	-.01	-.02	.08		
012	3.21	1.11	아플 때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따르고 의지 한다.	.55	.15	.07	.14		
09	3.30	1.30	내가 외출할 때 웬만한 곳이면 따라 가려고 한다.	.49	.10	-.31	.23		
M3	3.51	1.07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앞장서서 놀이를 이끈다.	.01	.77	.18	-.04	지도력	
M9	3.49	0.87	우리 아이가 제안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 한다.	.06	.74	.12	.11		
M4	3.12	1.17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자주 대장 노릇을 한다.	.09	.72	.14	.15		
M8	3.14	1.05	다른 아이에게 지시를 잘 한다.	.10	.59	.13	.17		
M7	3.32	1.02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집단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19	.56	.16	.08		
M5	3.39	1.09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놀이를 먼저 제안 한다.	.27	.55	.11	-.12		
M1	3.24	0.99	우리 아이가 주도하는 행동을 다른 아이들이 따라 한다.	.07	.55	.14	.07		
K7	3.34	1.01	다른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07	.50	.35	-.04		
K5	3.48	0.94	놀이나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낸다.	.08	.40	.37	-.06		
K4	3.57	1.10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예 :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본다.	.11	.19	.69	-.03	유능성	
K12	3.38	0.96	앞서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10	.07	.67	.12		

K6	3.29	1.06 힘에 벅찬 일이라도 어른이나 다른 아이들에 게 의지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04	.19	.65	-.08	
K1	3.55	1.06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 나.	.13	.21	.63	-.00	
OII	3.50	1.06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야기하거나 사물을 묘사 한다.	.20	.26	.62	.13	
M2	3.30	0.95 여러가지 정보에 기초해서 결정한다.	.12	.16	.56	-.03	
M9	3.29	1.00 자신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활동 을 시작한다.	.17	.36	.52	-.12	
L6	3.51	1.17 때로는 욕심이 많고 심술을 부릴 때가 있다.	.05	-.01	-.11	.71	반항성
L5	3.23	1.35 화풀이로 문을 꽁 닫는다.	.00	.03	-.09	.71	
L12	3.07	1.19 다른 아이와 놀이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13	.03	-.03	.64	
L10	2.87	1.23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화를 잘 낸다.	.05	.10	.06	.63	
L11	2.99	1.14 다른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하던 놀이를 그만둔다.	-.06	.07	-.02	.62	
L13	2.67	1.25 반항을 한다(예: 하라고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싫어, 안해”라고 한다.)	.03	.04	-.05	.57	
L7	2.59	1.08 화세의 대상을 쭈아 내리려고 한다.	-.00	-.02	.20	.56	
L4	3.40	1.15 누군가가(특히 가족이외의 사람) 자신의 행위 를 흡잡거나 바로 잡아 주려고 하면 민감한 반 응을 보인다(예: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시 무룩해짐).	.04	.02	.05	.52	